



NFRI Research News

ITER 한국사업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개최

지난 5월 9~10일 양일간 ITER 한국사업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착수회의에서는 ITER기구 사무총장(Kaname Ikeda)의 초청 간담회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핵융합연구과를 비롯하여 ITER사업 기획평가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08년도 ITER 한국사업(개발·제작 1단계1차년도)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ITER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 조달품목별 세부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짐과 함께 올해 사업수행에 대한 참여자들의 각오도 새롭게 되새기게 되었다.

이울러, 최초 플라즈마 달성을 앞둔 KSTAR의 종합시운전 진행 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제2차 ITER이사회 준비회의 및 이사회

작년 11월 프랑스 카다라쉬에서 제1차 ITER 이사회(IC-1)를 시작으로 지난 6월 16~18일 양일간 제2차 ITER 이사회(IC-2)가 일본 아오모리에서 개최되었다. ITER 참여국(유럽연합, 대한민국, 인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각 DA대표단들과 함께 우리측 수석대표인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박종구)을 비롯하여 거대과학지원관(이문기), 핵융합연구과장(유국희), 외교통상부 주일본 한국대사관의 허재용 과학관, ITER 한국사업단장인 이경수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ITER 이사회에서는 그 동안의 ITER 기구 활동의 경과 및 이사회 관련 사항 등을 보고 하였으며, 주요 의제안건은 ITER 프로젝트 설계변경, ITER 스케줄 및 건설 일정변경, 카자흐스탄의 신규가입 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차기 제3차 ITER 이사회(IC-3)는 올해 11월 중순경 프랑스 카다라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자력학회 및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워크숍 참석

'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가 경주에서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분야별 워크숍도 개최되었는데, 그중 핵융합 분야에서는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약 50여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원자력학회 양자공학 및 핵융합기술 연구회와 한국과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서 금번 워크숍에는 우리나라 핵융합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연구소에서는 KSTAR 연구센터장인 박주식 박사와 ITER 사업본부장 정기정 박사가 각각 KSAR와 ITER의 국내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울러, 금번 워크숍에서는 ITER와 KSTAR를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해 각각의 설명패널, 브로셔 및 ITER 모형을 전시 하였다.

